



“겨울 부산 어디까지 즐겨봤나요.” 부산이 겨울관광객을 위한 시즌축제로 광복로 일원에서 26일부터 개최하는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의 야간 일루미네이션(왼쪽)과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동래온천의 대표적인 온천사파 허심청의 내부. 부산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축제, 체험관광, 스토리투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상품으로 비수기 겨울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사진제공 부산관광공사

겨울축제·문화공연·미식투어... “로맨틱 부산으로 오세요”

아이디어 넘치는 부산 시즌여행

크리스마스·해맞이·북극곰 수영 등 다양한 체험·테마형 관광상품 눈길

“온천, 겨울축제, 스토리투어... 겨울관광객을 잡아라.”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진행한 가을여행주간이 5일 끝났다. 이제부터 내년 2월까지의 관광·여행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다. 스키장 등 일부 동계레저업종을 제외하면 여행수요가 크게 줄어드는 때다.

하지만 이 시기를 오히려 전에 없던 새로운 관광수요를 만들 기회로 보고 계절맞춤형 아이디어 상품을 내놓는 곳들도 있다. 부산광역시 대표적이다. 부산관광공사는 11월부터 내년 2월 말

까지 ‘겨울 여행은 로맨틱한 부산으로’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겨울축제부터 온천, 요트, 윈드서핑 등 체험상품, 드라마 촬영장 탐방, 원도심 스토리투어 등의 신규상품을 내놓았다.

우선 겨울축제로 광복로 일대에서 26일부터 ‘부산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를 연다. 거리를 화려한 일루미네이션으로 꾸미고 문화공연과 미식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7시부터 8시 사이에 하늘에서 눈을 뿌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타임’이다.

부평동 야시장의 50여개 주전부리를 비롯해 BIFF광장 등 부산이 자랑하는 먹거리 문화를 즐길 수도 있다. 해운대에서는 12월31일 시민대행사와 불꽃놀이로 구성된 해맞이 부산축제가 열린다. 1월에는 30년 전통의 ‘해운대 북극곰 수영축제’를 진행한다.

●동래온천의 명성, 겨울에 느껴볼까

체험관광에서는 겨울관광의 인기 아이템 온천이 우선 눈길을 끈다.

동래온천의 명성을 활용해 허심청, 해운대의 힐스파와 스파랜드 등 지역의 대표적인 스파시설을 여행상품으로 내세웠다.

이제는 여행이나 관광의 핵심 테마가 된 미식 아이템으로는 부산이 자랑하는 어묵브랜드, ‘고래사’와 ‘삼진어묵’을 활용해 가족들이 직접 어묵을 만드는 체험 상품을 만들었다. 요트, 윈드서핑 등 겨울에 잘 즐기지 않던 레저스포츠를 역발상의 아이디어로 내놓아 이에 대한 관광객들의 호응도 관심을 끈다. 겨울 프로모션에 맞춘 신규 관광지로는 드라마 ‘쇼팽왕 루이’ 촬영지를 엮은 상품이 있다. 부산역에서 출발해 영화의거리, 국제시장, 부평야시장, 광안리, 산복도로

등을 돌아보는 코스다. 부산의 어제를 느낄 수 있는 근현대사 유적의 자취를 돌아보는 원도심 스토리 투어는 6개의 코스 중 선택해 도보로 2시간 정도면 돌아볼 수 있다는 간편함이 매력이다.

부산관광공사 신용삼 상임이사는 “부산 겨울의 평균 온도는 3.8도로 골프, 낚시, 요트 등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하다. 부산은 편리한 교통과 숙박, 다양한 아이디어의 상품으로 겨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관광공사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공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부산 겨울여행 관광지 추천, 겨울 부산이 좋은 이유 등의 이벤트를 매월 실시해 추첨을 통해 숙박권, 스파이용권, 영화 모바일관람권, 커피 모바일상품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에버랜드, 릴레이 축제 “연말이 즐겁다”

‘로맨틱 일루미네이션’ 12일부터 ‘크리스마스 판타지’ 축제도 예정

대형 테마파크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사계절 운영체제다. 테마파크의 매출 성패는 5월이나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가 아닌 겨울 비수기에 얼마나 방문객을 유인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가 12일부터 내년 3월1일까지 진행하는 ‘로맨틱 일루미네이션’축제도 비시즌을 겨냥한 행사다. 에버랜드는 기존의 포시즌스 가든을 윈터 에니멀 가든으로 바꿔, 판다부터 기린과 팬귄, 표범, 순록 등 15종 108마리의 동물조형물들을 실제 크기로 전시한다.

특히 포시즌스 가든과 장미원 사이 신전분수에 26m 높이의 ‘로맨틱 타워



트리’를 12월부터 오픈 한다. 내외부 모두에서 관람이 가능한 초대형 트리로, 최대 50명까지 동시 입장 가능하다.

트리 상단에는 3600여개의 크리스털

로 제작한 지름 3m의 대형별이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한 달 앞둔 24일부터는 ‘크리스마스 판타지’ 축제(사진)를 개최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인공 눈을 흠날리며 행진하는 ‘화이트 X-mas 퍼레이드’다. 축제에 앞서 18일부터 매일 낮 1회씩 진행되는 퍼레이드에서는 에버랜드 대표 캐릭터 레니와 라라는 물론, 산타클로스 루돌프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캐릭터가 등장한다.

어린이들이 직접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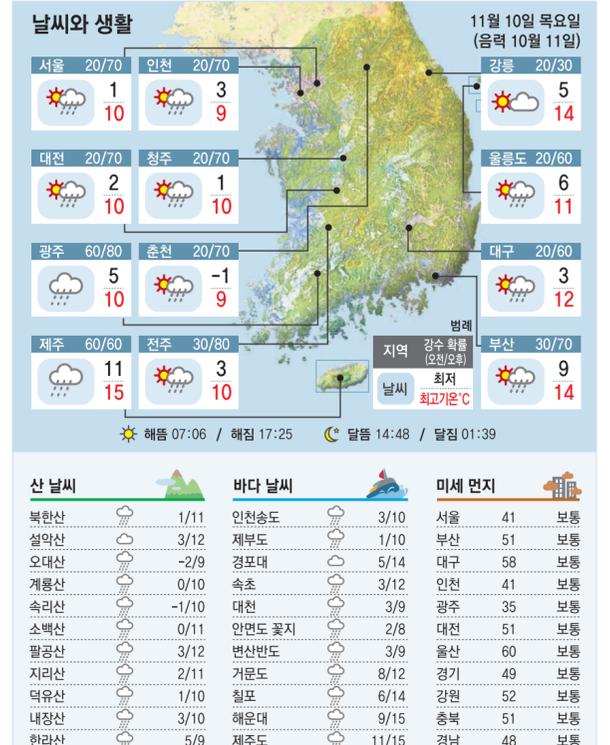
가을여행주간 관람객 9.5% 증가

10월24일부터 11월5일까지 실시한 가을여행주간에서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요 관광지지역간에 희비가 엇갈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요 관광지 55곳에 대해 가을여행주간 관람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방문객 총계는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하지만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주, 거제, 통영 등은 관람객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람객 증가가 가장 큰 곳은 무주 태권도원으로 지난해 1446명에서 올해 3589명으로 148.2%나 늘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90.7%), 강원 오죽헌(45.5%), 대구 근대골목(40.9%), 부산 감천마을(37.8%), 순천 국가정원, 순천만습지(25.4%) 등도 20% 이상 방문객이 증가했다. 반면 경주 동궁과 월지(-54.4%), 경주 양동마을(-33.6%), 거제

바람의 언덕(-24.9%), 통영 동피랑 마을(-19.2%), 거제 해금강(-18%), 여수 엑스포 해양공원(-10.8%) 등은 방문객 감소율이 높았다. 김재범 기자

원마운트, 수능 수험생 할인 이벤트

경기도 고양 원마운트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수능 당일 17일부터 30일까지 수험생과 동반인 대상으로 입장권 할인을 해준다. 수험생 본인이 소셜커머스(티몬, 쿠팡, 위메프)나 오픈마켓(옥션, 지마켓 등)을 통해 수험생 특가 티켓을 구매하고, 입장 시 수험표를 제시하면 된다. 스노우파크 입장권에는 스카이트 무료 대여권도 포함된다. 배메로데이 ‘1+1’ 프로모션도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다. 워터파크나 스노우파크 종일권 1매를 구입 시 추가로 1매를 준다. 김재범 기자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편집 | 정용은 기자 sadzoo@donga.com

NAVER 공지암 할매 소머리국밥

60년 전통의 맛!

공지암 할매 소머리국밥

주방장 없이 초보자도 쉽게 창업

장사가 안되십니까? 요즘 뜨고있는 국밥집
간판만 바꿔 **빨리** 대박집 사장님이 되세요!

공장 증축 기념 특별이벤트

3백만원 OPEN

가맹비·교육비·홍보비

벌어서 갚으세요!

특별 행사 기간: 12월 31일 **본사에서 간판 지원**

가맹점 모집 **1588-3892**

공지암에서 일매출 500만원 이상 판매 되고 있는, 국내 최초 소머리국밥 런칭 브랜드 출시기념 간판 판갈이 지원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성공 사례

일매출 10만원~30만원 팔던 가게
고민끝에 업종변경으로
일매출 150만원

메뉴

(장소, 평수에 따라 메뉴와 가격 선택 가능)

순대국, 육개장, 갈비탕,
설렁탕, 소머리수육,
마늘보쌈, 갈비찜, 곰창구이

11월 오픈예정점

거제 칠천도점, 거제연초점, 함안점
방배점, 진천점, 군산점,
구미점, 구월점